

“삶의 소리”와의 對話

林 英 芳

서울대학교 人文大學 教授(美學)

‘오랜만에 개인전을 보여주는 全陵의 이번 전시작품은 그가 美國 유학에서 1980년 귀국하여 전시한 작품과 일련의 맥을 이룬다.

그때의 작품은 자연생명의 生成性을 평면적으로 처리한 다양한 입체형식의 것이었다. 그 다양한 구성이 生成消滅하는 자연생명체의 변모를 알려주었다.

이 전시후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全陵의 作業은 탐구적인 발전을 하여 오늘의 전시작품을 보이게 되었다.

그의 作業은 계속 자연의 생명성을 묘사하는 영역에 집착하고 있으며, 생명성을 조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범위와 방법을 보여준다.

표현적인 범위는 상징성을 표출하는 조형의 다각적인 구성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예컨대, 작품 “소리—正午의 表情”은 하나의 작은 덩어리가, 그와 유사한 수 많은 덩어리와 연결, 결합하여 유기적인 성격의 큰 단위를 이룬 集合體로 등장한다.

立體的이면서 平面的인 이 구성은, 그 요소가 生成의인 신장을 거듭한 결과이며 거기에 생명적인 생성의 맥박 내지는 그 리듬이 담겨있다.

一見, 이 作品은 단순하고 평범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存在的인 生成에 대한 우리의 성찰을 요구한다.

한편, 作品 “소리—하늘과 땅”은 일련의 연작으로서, 전시에 출품하고 있다.

이 作品 또한 前者와 같은 概念에 속한다. 모든 생명적인 존재와 그 생성은 母體의 토양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에 따라 좌우된다.

이 점은 모든 生命體에 관련된 것인바, 그 관계를 작품을 통하여 全陵이 이번 전시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主題가 추상적이고 다분히 思索的인 성격이라는 데서 작가의 조형적인 해석과 이해의 능력이 각별히 요구된다.

이에 全陵은 일련의 연관성을 지닌 作品으로 자신의 이해를 엿보여 준다.

그것은 “소리—하늘과 땅”의 연작과 “소리—삶의 기억에서” 연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生의 成長은 유기성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그 成長의 리듬과 변천적인 양상을 보게한다. 변모를 거듭하며 성장하는 생명체는 활력과, 그 한계를 갖는다.

어느 時點에 이르러, 그 생명체는 자체의 수명을 다하게 된다.

이와같은 해석과 이해를 全陵의 作品이 가능케 하여 준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연결지어 볼 때 계속적으로 변모하는 상징적인 생명성의 생성과 소멸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을 사색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

한편 “人間—뚝으로부터”, “소리—뚝으로부터” 등의 일련의 작품은 삶의 흔적, 다시 말해서 삶의 여정을 알려준다.

그것은, 삶과 그 한계에 관한 알레고리이다.

그것을 보면, 여러가지의 상태로 성장한 생명체와, 별별 삶을 있게한 삶의 흔적 등을 연상케 한다.

결국 생을 삶의 흔적으로 채움으로써, 운명을 다한다는 것과, 삶의 흔적이 많을수록, 삶의 時限性이 노출되는, 여러 꼴의 삶과, 人間을 全陵의 作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못, 사색적이고 反省的인 성격의 全陵의 전 시 작품은, 속고의 감상자세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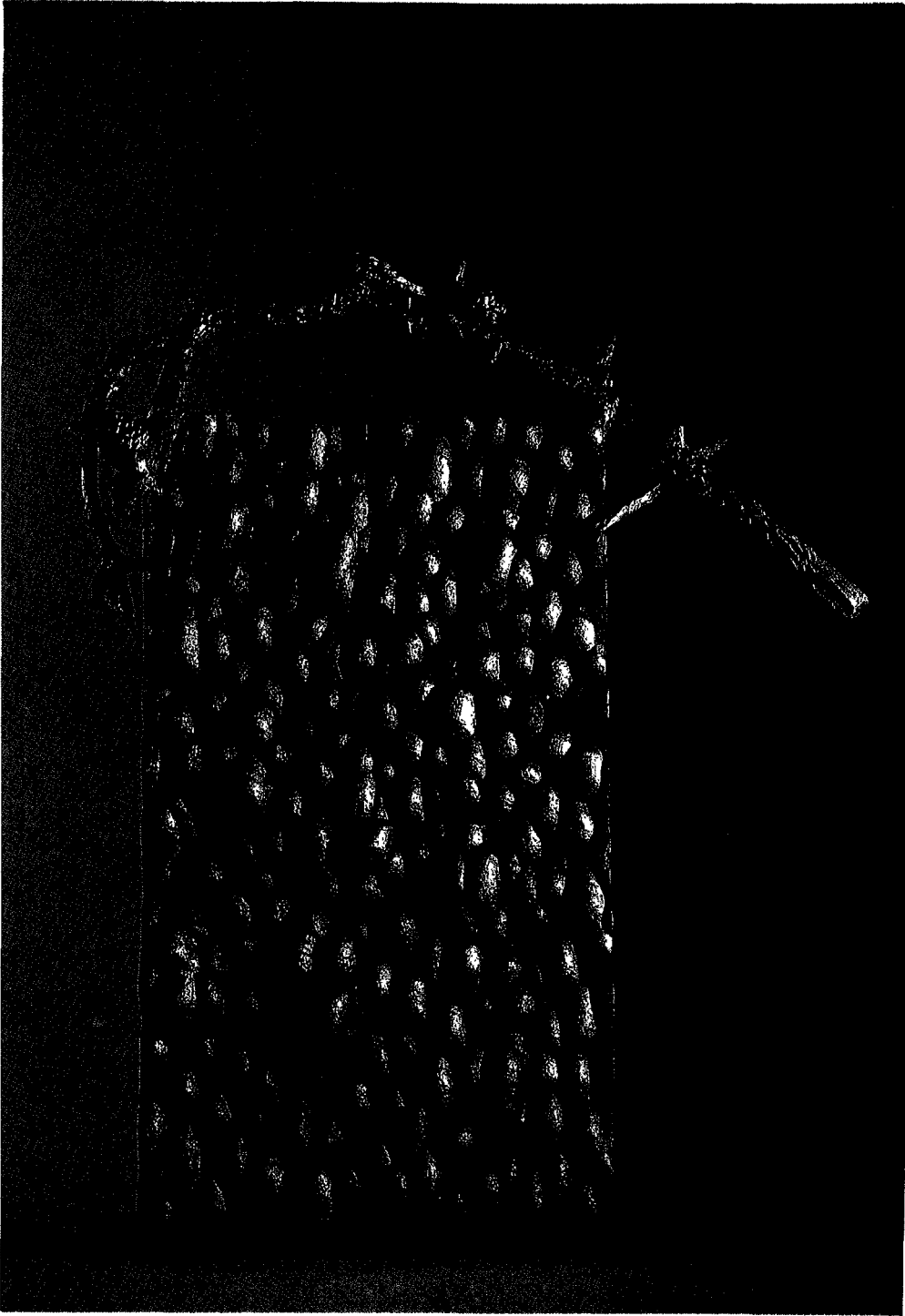
한편, 그의 작품이 단순하고, 탄조로운 造形性을 보이고, 깊은 사색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서, 野外 造形作品으로 지적함을 생각해 한다.

全陵은 銅에서 石材(오석)로 옮겨, 作品의 材料上的 변화를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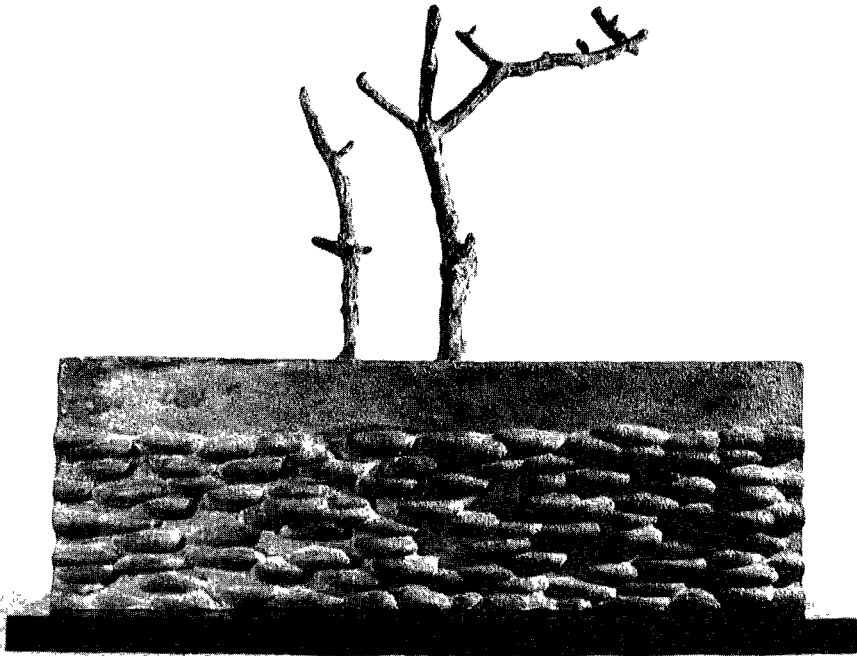
作品 “소리—삶 속에서”는 石材와 銅이 共存,

和合하고 있는 例作이고, 삶 의 신비성과 불가사의한 그 세계를 또 다시 全陵이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일련의 전시작품을 두고 볼 때, 감상자 내지는 관람객은 작가가 과연 무엇을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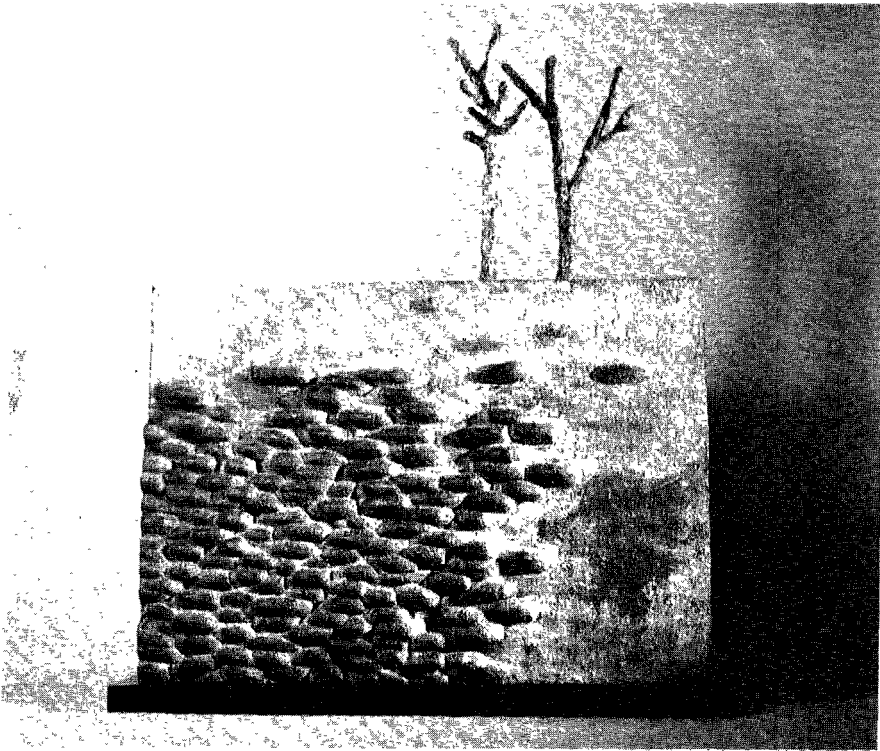
어떠한 방법으로 작가는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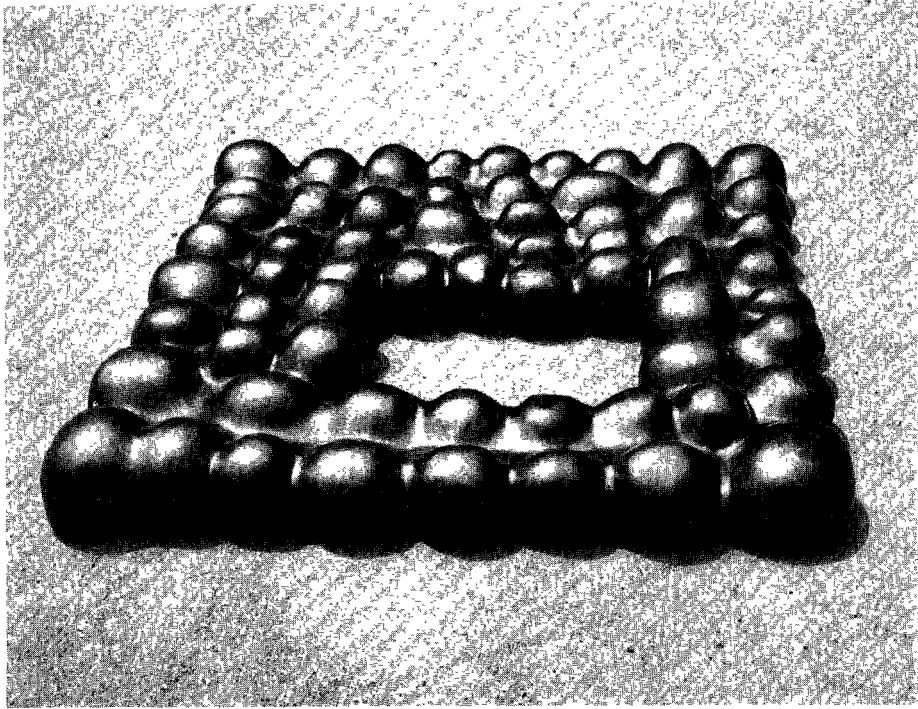
소리-삶의 기억에서 70×25×120cm 브론즈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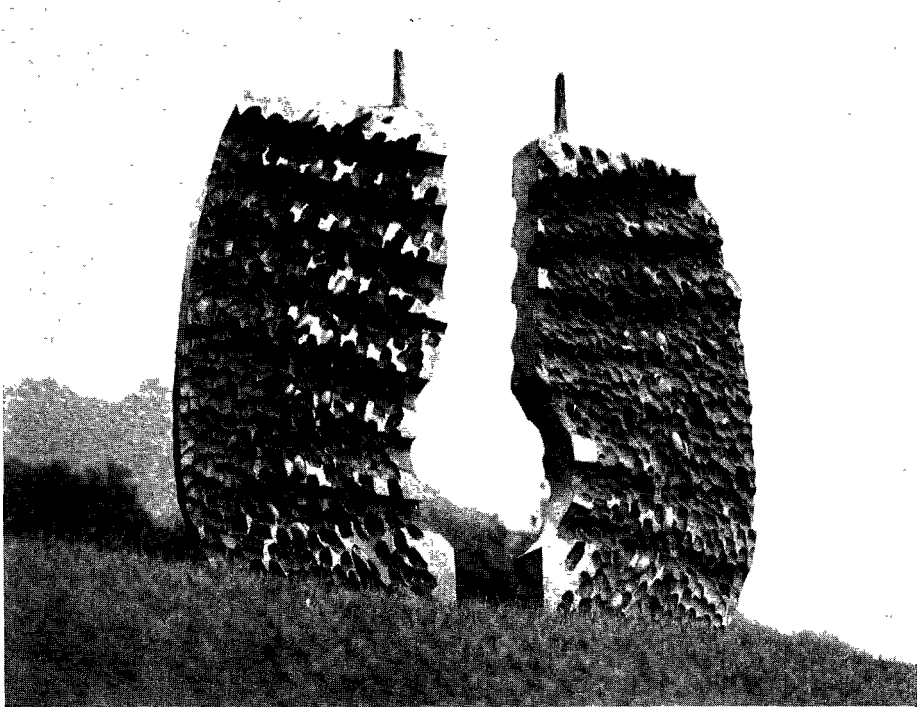
소리-하늘과 땅 94×24×78cm 브론즈 1988



소리-하늘과 땅 107×22×115cm 브론즈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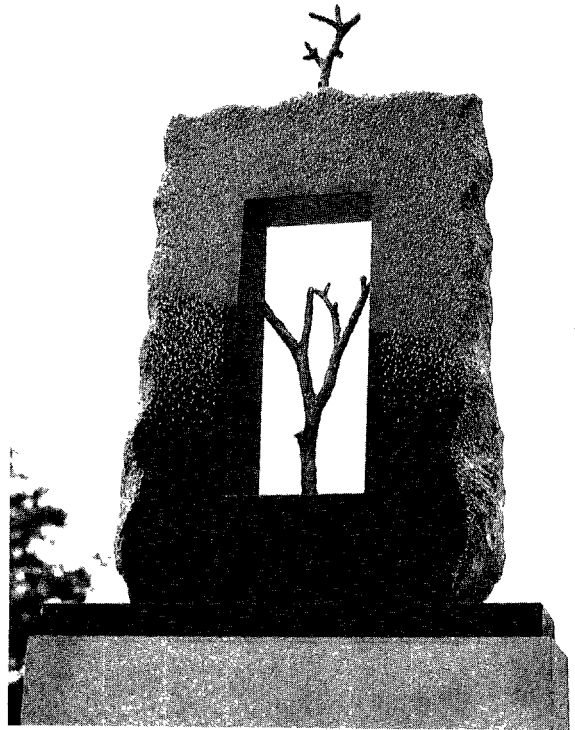
소리-正午의 表情 178×174×25cm 브론즈 1986



소리-뚝으로부터 210×49×222cm 브론즈 1989



소리-뫇으로부터 70×45×120cm 브론즈 1989



소리-삼속에서 73×30×118cm 브론즈 1989



소리-삼속에서 83×21×131cm 브론즈 1989